

## 욥의 최후 진술: 나는 투명한 양심으로 살았다

성경말씀: 욥29:1-25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3차에 걸쳐서(4-31장), 욥과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위선자  
지난 주 욥기 강해, 지혜란 무엇이든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욥29:28),

욥과 세 친구는 더 할 말이 없다. 소발은 3차 논쟁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제 욥의 마지막 정리 29-31  
29장 과거, 30장 현재, 31장 자기변호, 나는 투명한 양심으로 인생을 살았다. < >

### 욥의 과거(29)

재난을 당한 뒤 욥은 곧바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함(욥3장). 3절부터...

29장에서는 재난 이전에 자기와 가족들이 누리던 복을 회상함

하나님은 균형을 이루신다. 재난도 있고 복도 있다(욥2:10).

스펠전: 많은 사람들이 복은 모래에 기록하고 재난은 바위에 기록한다.

그때가 참 좋았다(2).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던 때, 우리 모두 이런 때가 있다.

신명기 모세, 기억하라(신8:2), 과거는 우리를 매는 닢이 아니라 키가 되어야 한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인재의 복)

1.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2). 그분의 빛(3), 하나님이 그와 친밀하게 지냄(4). 내 가족이 전능자와 함께  
지냄(5), 하나님이 만복의 극원(6)

젊은 시절을 누구나 그리워한다(4). 그리고는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나  
늙음과 죽음이 온다.

바르게 늙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2.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7-11)

3. 다른 사람들을 섬김(12-17),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섬겼다.

4. 미래에 대한 확신(18-20),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5.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며 살았다(21-25). 그는 한 마디로 지역 사회의 리더였다.

그리스도인으로 매우 중요한 것: 내가 속한 가정, 사회, 교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

### 욥의 현재(30)

현재 상태(1). “그러나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직시함

1. 존경을 받지 못한다(1-15); 젊은이들이 조롱함(1). 이들의 아버지들, 자기가 한때 나귀처럼 비천하게  
여기던 자들(7), 그런데 하나님이 줄을 놓자 이들이 심히 조롱함(11)

2. 복이 없다(16-23), 고난의 날(16절), 기도의 응답이 없다(20), 주님이 잔인하게 느껴짐(21).

3. 도움이 없다(24-25), 과거의 나, 지금 아무 도움이 없다.

4. 미래가 없다(26-28)

5.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 사역을 할 수 없다(29-31).

### 내 양심은 투명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31)

욥의 마지막 변호, 맹세를 하고 법적 문서에 도장을 찍는 심경, 잘못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31:35-37).

죄가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해 사람이 짓는 죄 나열, 16번이나 “만일 내가...”(5-6절)

단 하나의 호소: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만 주면 좋겠다(35).

남자가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죄

1. 정욕(1-4), 음욕, 약1:13-16, 마5:28

하나님의 심판(2-3), 멸망이다.

2. 속이는 것(5-8), 사업을 하면서 사기 치거나 속이지 않았다.

3. 간음(9-12), 잠6:27-29, 엡5:3-7 등

4. 그 이후에 그는 종을 고용하는 사람(13-15): 종들을 학대하지 않음

5. 이웃 관계(16-23, 29-32):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도와줌,

6. 예배하는 자(24-28), 오직 하나님만, 물질이나 창조물을 섬기지 않음

6. 청지기(38-40)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잘 유지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그는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림(35). 나는 투명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고통을 받는다. 벧전4:12-16

명백히 죄를 짓고 나서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하면 안 된다. 욕은 투명한 양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투명한 양심, 담대해 진다.

###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Conscience) 신약에만 31번, 모든 자유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적 기능(롬2:13-15). 양심을 통해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옳은 것은 택하고 그른 것은 버린다. 양심은 자연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 자체와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규제한다.

양심이 있기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계 보고할 책임을 지니고 있고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양심이 순수하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의무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때에는 어떤 것도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다.

양심이 바른 것을 해야 한다고 외치며 확신을 주지만 양심의 가치는 사람의 혼의 타락으로 인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혼은 거의 모든 문제에서 사람의 판단을 굽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양심에 의거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행26:9). 그의 죄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자기의 양심에 빛이 비치도록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하지 않은 데 있다. 시대를 통해 교회를 박해한 사건들과 의도적인 오류들은 모든 사람이 완전한 빛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잘 보여 준다. 선하고 순수한 양심(딤후1:5; 3:9)은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복종하게 만든다. 사람이 이렇게 양심에 순종할 때 범법하지 않는다(행24:16). 선한 양심의 허락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KJB, 근본적 믿음, 애국 약하고 결의가 없고 어두워진 양심(고전8:7)은 더러워진 양심으로서 부패한 마음의 노예 노릇을 할 뿐이다(딤후1:15; 히10:22). 이것은 또한 인두로 지진 양심으로(딤후4:2) 은혜에 의해 변하지 않는 한 율법과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며 궁극적으로 복수하는 양심이 되고 영원한 후회를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

몸의 상처는 결코 양심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양심이 활동을 멈추고 자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을 영원토록 괴롭게 할 것이다.

### 투명한 양심을 가지면 담대해진다

행23:1; 24:16, 고후1:12, 딤후1:3

마르틴 루터의 고백: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겠다. 오 하나님여, 나를 도우소서”.

### 어떻게 투명하게 유지하는가?

우리의 양심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양심의 의도가 좋아도 결국 내 의를 주장하게 된다. 세상 지혜: 역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한다. 현자들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혜 중의 지혜인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이 무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양심을 재는 척도 히9:14, 죽은 종교 행위로는 불가능: 날, 음식 등 여러 가지 문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즉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회에서는 주변 성도들의 권고

이중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종교적 위선이다.

욕처럼, 바울처럼, 루터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양심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